Symphony No. 7 in C♯ minor, Op. 131

- □□

정보

Sergei Prokofiev: Symphony No. 7 in C♯ minor, Op. 131

개요
작곡가: Sergei Prokofiev (1891–1953)
작품명: Symphony No. 7 in C♯ minor, Op. 131
장르: 4악장 관현악 교향곡
작곡 시기: 1951–1952년
초연: 1952년 10월 11일, Moscow Trade Union Hall of Columns
초연 단체 ·지휘: All-Union Radio Orchestra, Samuil Samosud 지휘
초판: 1953년 Moscow의 Muzgiz
공연 시간: 판본과 종결 선택에 따라 약 30–33분

IMSLP: Symphony No.7, Op.131 (Prokofiev, Sergey)

Wikipedia: Symphony No. 7

Sergei Prokofiev의 Symphony No. 7 in C♯ minor, Op. 131은 그의 마지막 교향곡으로 , Moderato, Allegretto, Andante espressivo, Vivace의 네 악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1951–1952년에 완성되어 1952년 10월 11일 Moscow Trade Union Hall of Columns에서 Samuil Samosud와 All-Union Radio Orchestra가 초연했다. 초기에는 어린 청중을 위한 단순한 교향곡을 구상했지만 , 완성작은 느린 서정적 주제와 춤곡, 질주하는 피날레를 결합한 일반 관현악 교향곡으로 확장되었다 . 피날레에는 C♯단조로 서서히 사라지는 원래 종결과, 리허설 과정에서 마련된 더 빠르고 밝은 D♭장조 대안 종결이 함께 전승되며, 이 선택이 작품의 마지막 인상을 결정한다.

출판 정보와 자료

Moscow의 Muzgiz가 1953년에 초판을 냈고, IMSLP는 1963년 Moscow Muzgiz 전집과 1976년 Moscow Muzyka 총보를 별도로 목록화한다 . Boosey & Hawkes 카탈로그는 작품을 Op. 131, 1951–1952년 작곡, 약 32분의 4악장 교향곡으로 제시한다. Schott는 후대의 개정 ·교정 신판을 소개한다.

두 종결은 같은 작품의 서로 다른 공연 ·판본 선택이다. 원래 Vivace는 속도가 늦어지며 C♯단조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방향으로 끝난다. 대안 종결은 빠른 주제를 다시 밀어붙여 D♭장조의 밝은 효과를 만든다. 일부 자료가 이를 C장조로 부르지만, 확인된 악보 ·해설은 D♭장조 또는 C♯장조 계열을 지지한다. 따라서 C장조를 작품의 확정 조성으로 적지 않는다.

소요 시간

출판사와 공연기관은 약 30분에서 32분을 안내한다. Andrew Litton과 Bergen Philharmonic의 BIS 녹음은 원래 종결을 택한 32분 57초와 대안 Vivace 9분 4초를 별도 트랙으로 제시한다. TMSO와 Mississippi Symphony Orchestra 자료도 약 31분 안팎 또는 30–35분의 범위를 사용한다. 시간 차이는 지휘 속도, 악보의 반복, 피날레 선택과 트랙 구분에 따라 생기므로, 특정 녹음의 수치를 모든 공연에 적용하지 않는다.

편성

Boosey & Hawkes의 축약 표기와 Cleveland Orchestra·Mississippi Symphony Orchestra의 프로그램을 풀어 쓰면 다음과 같다.

목관: 피콜로, 플루트 2, 오보에 2, 잉글리시 호른, 클라리넷 2, 베이스 클라리넷, 바순 2
금관: 호른 4, 트럼펫 3, 트롬본 3, 튜바
타악: 팀파니, 큰북, 작은북, 탬버린, 트라이앵글 , 심벌즈, 우드블록, 실로폰, 글로켄슈필
기타: 피아노, 하프, 현악기

현재 확인한 기관 자료의 기본 편성은 서로 일치한다. 1953년 초판, 1963년 전집, 1976년 총보와 후대 연주용 총보의 오탈자나 세부 배치는 직접 대조하지 않았으므로 , 특정 판본에서 악기가 삭제되었다고
녹음만으로 추론하지 않는다.

작곡의 출발과 완성

어린 청중을 위한 구상

Boosey, Cleveland Orchestra와 여러 공연기관 해설은 이 교향곡이 어린이 또는 청소년 청중을 위한 라디오 작품 구상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한다. 초기 구상은 단순한 선율과 이해하기 쉬운 진행을 염두에 두었지만, 작곡이 진행되면서 네 악장의 교향적 규모와 복합적인 판본 문제가 형성되었다 . 어린이 또는 청소년이라는
범위는 기관 해설이 전하는 표현으로 남아 있다.

1951–1952년의 작업과 말년의 맥락

작품은 Prokofiev가 건강 악화와 공식 비판 속에서 활동하던 말년에 완성되었다 . Boosey의 해설은 1951–1952년을 작곡 기간으로 제시하고, TMSO와 IMSLP도 같은 범위를 기록한다. 1957년 Lenin Prize 수상은 여러 기관 자료에 반복되지만 , 1957년에 별도의 개정 총보가 발행되었다는 사실과는 분리한다. 작품의 밝은 표면을 곧바로 정치적 순응의 증거로 단정하지 않고, 종결 선택과 당시의 전언을 통해 제도적 맥락을 살핀다.

초연과 두 피날레의 전승

1952년 모스크바 초연

Tokyo Metropolitan Symphony Orchestra, Cleveland Orchestra, Mississippi Symphony Orchestra와 Radio Orpheus의 자료는 1952년 10월 11일 Moscow Trade Union Hall of Columns에서 All-Union Radio Orchestra와 Samuil Samosud가 초연했다고 기록한다. IMSLP에는 10월 1일이라는 다른 메타데이터가
있으므로 날짜가 갈린다. 10월 11일은 여러 기관의 공연 안내가 일치하는 날짜로 본문에 사용한다.

초연 과정에서 Samosud가 더 빠른 마지막 부분을 제안했다는 이야기는 Mstislav Rostropovich의 1996년 인터뷰와 Georgia Petroudi의 연구가 전하는 전언이다. Rostropovich는 Prokofiev가 원래의 느린 종결을
지켜 달라고 부탁했다고 회고하지만 , 이는 Prokofiev의 원문 편지나 리허설 문서가 아니라 후대 연주자의
재전달이다 . 두 종결의 선택을 한 사람이 내린 공식 명령으로 단정하기보다 , 초연 리허설 ·연주자 기억 ·후대 악보가 겹쳐 형성한 공연 전승으로 설명한다.

두 종결의 음악적 기능

원래 종결에서는 제 4악장 Vivace의 질주가 잦아들고, 앞 악장에서 들었던 넓은 선율과 글로켄슈필 계열의
음색이 사라지는 결말로 이어진다. 대안 종결은 같은 피날레의 빠른 추진력을 다시 살려 더 밝고 외향적인 끝을 만든다. MusicWeb의 Andrew Litton 음반 검토는 원래 종결과 대안 종결을 별도 트랙으로 비교하며, 실제 공연에서 두 선택이 병존함을 보여 준다.

Petroudi는 두 종결을 미학적 선택과 제도적 압력의 관계 속에서 분석한다. 이 연구와 Rostropovich의 전언은 대안 종결이 상훈을 의식한 결과였을 가능성을 논의하지만 , 작곡가의 공식 지시서가 남아 있다는 뜻은 아니다. 1957년 Lenin Prize와 빠른 종결의 수용을 연결하는 문장은 연구자와 회고자의 해석으로 귀속한다.

네 악장의 구조

I. Moderato

첫 악장은 넓게 호흡하는 현악 주제와 따뜻한 관악 선율, 목관과 글로켄슈필의 또렷한 움직임을 차례로 제시한다. Cleveland Orchestra는 이 재료를 세 종류의 주제로 설명하며, TMSO는 서정적 선율이 다음 악장의 춤곡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강조한다. 전통적인 소나타 형식의 세부 구획을 확정할 총보 분석은 별도로 필요하지만, 첫 악장이 회상적 선율과 투명한 음향을 교향곡의 기본 색채로 설정한다는 점은 기관 해설에서 공통으로 확인된다.

II. *Allegretto*

느긋한 왈츠풍 출발이 점차 빠른 스케르초 성격으로 치닫는다. Cleveland Orchestra는 중간의 Trio와 재현 뒤 긴박한 끝을 설명하고, TMSO는 A–B–A–B–A로 돌아오는 왈츠형 배치를 제시한다. 두 설명을 종합하면 이 악장은 단순한 삽입 춤곡이 아니라, 말년 Prokofiev의 가벼운 표면과 불안정한 추진력을 함께 보여 주는 중심 악장이다.

III. *Andante espressivo*

세 번째 악장은 유려한 선율과 끊어지는 음형을 대비시키며, 플루트·피아노·하프의 음색을 반복해서 불러온다. TMSO는 세 부분으로 이어지는 느린 악장으로 요약하고, Cleveland Orchestra는 조용한 금관 종결을 강조한다. 단순하고 직접적인 선율은 어린 청중을 위한 초기 구상과 연결되지만, 악장의 긴 호흡과 음색 대비는 완성작의 서정적 깊이를 만든다.

IV. *Vivace*

피날레는 질주하는 주제와 행진 성격의 삽입을 이어 가다가 제 1악장의 넓은 선율을 돌아오게 한다. 글로켄슈필과 다른 타악기가 빠른 움직임을 강조하며, 마지막 구간에서 두 종결 중 하나를 선택한다. 원래 종결은 점차 느려지며 C♯단조의 조용한 소멸로 끝나고, 대안 종결은 빠른 주제를 재점화해 D♭장조의 밝은 효과를 남긴다. 따라서 *Vivace*의 마지막 구간은 작품의 전체 정서를 어느 방향으로 닫을지 결정하는 부분이다.

판본, 연주와 수용

초판과 후대 편집

1953년 Muzgiz 초판과 1963년 전집, 1976년 총보는 작품이 소련 출판 체계 안에서 유통된 경로를 보여 준다. 후대 연주자는 원래 종결과 대안 종결을 악보 본문 또는 선택 가능한 부록으로 만난다. Schott는 개정·교정 신판을 소개하며, 이 판본에서도 원래 종결과 대안 종결이 함께 전승된다.

녹음과 연주자의 증언

MusicWeb이 검토한 Andrew Litton·Bergen Philharmonic의 BIS 2134는 원래 종결을 택하고 대안 Vivace 를 별도 트랙으로 제시한다. TMSO와 MSO 프로그램은 Samosud, Ormandy, Gergiev, Järvi 등의 공연
전승을 언급하며, 녹음별 판본과 시간은 각 레이블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Rostropovich의 1996년
인터뷰는 원래 종결을 보존하려는 Prokofiev의 부탁과 빠른 종결이 더 큰 박수를 받았다는 자신의 판단을 전한다. 이 증언은 두 피날레의 실연 관행을 이해하게 하지만, 하나의 정답을 선언하는 지휘 지침은 아니다.

수용과 해석의 범위

TIME의 1953년 보도는 모스크바 반응과 Pravda의 승인, Ormandy와 Philadelphia Orchestra의 미국
연주를 동시대 잡지의 언어로 전한다. Petroudi는 빠른 종결과 Lenin Prize의 관계를 소비에트 제도와
작곡가의 생존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한다. Cleveland와 Boosey의 프로그램 해설은 어린 청중, 밝은 젊음 , 건강 악화의 맥락을 설명한다. 이 자료들은 작품의 수용사를 음악적 ·제도적 ·전기적 맥락이 겹치는 과정으로 보여 준다.

주요 자료

Boosey & Hawkes, Symphony No. 7 in C sharp minor: Op. 131, 작곡 연대, 약 32분, 편성,
어린 청중을 위한 초기 구상.
The Cleveland Orchestra, Symphony No. 7: 4악장 구조, 편성, 악장 해설과 피날레 변경의 경위. Tokyo Metropolitan Symphony Orchestra, Prokofiev 7 프로그램: 1952년 10월 11일 초연, Samosud와 All-Union Radio Orchestra, 악장 설명.
Georgia Petroudi, “Prokofiev’s seventh symphony and its two endings”: 두 종결의 생성 · 수용과 제도적 맥락에 관한 연구.
Mstislav Rostropovich 인터뷰: Samosud의 제안과 Prokofiev의 원래 종결에 관한 연주자 전언. Radio Orpheus, Prokofiev 제 7교향곡 초연 해설: 초연 날짜, 두 종결, 1957년 Lenin Prize.
John Quinn, MusicWeb International, BIS 2134: Andrew Litton·Bergen Philharmonic의 원래 · 대안 종결 녹음과 독립 비평.
TIME, “Music: Prokofieff’s Farewell”: 1953년 동시대 보도와 미국 초연 맥락.
Mississippi Symphony Orchestra 프로그램 노트: 작곡 ·초연 ·편성 ·시간과 피날레 개요. Hollywood Bowl, Symphony No. 7: 작곡 연대, 초기 청중 구상, 편성과 두 종결.
IMSLP, Symphony No. 7, Op. 131: 1953년 Muzgiz 초판과 후대 판본 ·평균 시간 메타데이터 . Dave Ratcliffe, Prokofiev biography: 어린 청중을 위한 구상과 C♯단조 ·D♭장조 종결의 전승.